

# 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차평가 결과 발표

- 2022 개정 교육과정·2028 대입개편안 반영 등 91개 대학의 전형 개선 노력 평가
- 안정적인 대입 환경 조성을 위해 총 575억 원 사업비 지원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정)는 5월 21일(목) ‘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차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입학(이하 대입)전형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하고, 대입전형 운영의 공정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이다.

### < 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개요 >

- **(목적)** 전형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전형 간 연계성을 제고하여 수험생의 대입준비 부담 완화
- **(규모)** 총 91개교\* / 2026년 기준 58,533백만 원(사업관리비 1,000백만 원 포함)  
\* 기본사업 선정 대학 중 자율공모사업 수행 대학을 선정, '25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는 '26년 통합 '강원대' 출범으로 통합하여 지원

구분	지원목표	선정/지원 규모
기본사업	대입전형 운영을 통한 고교교육 지원 및 사회적 책무성 확보	91개교 / 537억 원 내외
자율공모사업	대학별 특성에 맞는 분야별 선도모델 발굴 및 성과확산	16개교 / 38억 원 내외

- **(사업기간)** 2026.3. ~ 2027.2.
- **(지원내용)** 입학사정관 인건비 및 교육·훈련 경비, 대입전형 연구비, 고교(시도교육청) 협력 활동 운영비, 사업 성과 확산 등에 필요한 비용 등

이번 평가는 4주기(2025~2026년, 2개년) 사업의 2차 연도 평가로, 지난해 선정된 전국 91개교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025년 사업 운영 실적과 2027~2028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중심으로 ▲대입 평가 역량, ▲고교교육 연계성, ▲사회적 책무성, ▲예산 운영 등 4개 영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사업총괄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따라 ‘S’등급 대학 18개교, ‘A’등급 55개교, ‘B’등급 대학 18개교를 선정하였다. ‘S’등급 대학에는 사업비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B’등급 대학은 사업비를 10% 감액하는 한편 사업관리기관(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추가 상담(컨설팅)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자율공모사업(4가지 분야, 16개교)에 참여한 대학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이행 수준과 1차 연도 성과를 평가한 결과, 모든 대학이 적정 수준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지역 고교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선도모형(모델)의 발굴과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자율공모사업 분야 : ①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② 교육과정 직접 지원, ③ 전형 운영 개선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계성 제고 등), ④ 대입정보 제공 확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6월 초까지 최종 평가 결과와 대학별 사업비를 확정·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에도 2027학년도 및 2028학년도 대입전형이 공교육 안정화와 사교육 부담 완화 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1. 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차평가 지표
  2. 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차평가 결과
  3. 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개요

담당 부서	대학정책관 대입정책과	책임자	과장	신진용 (044-203-6885)
		담당자	사무관	윤은정 (044-203-6888)
담당 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지원실 입학지원공정성팀	책임자	팀장	김병진 (02-6919-3841)
		담당자	전문원	양주영 (02-6919-3993)

**붙임1**

**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차평가 지표**

**1 기본사업**

평가 영역		세부 지표	배점
1 평가역량	공정성 확보	■ 내·외부 감시체계 등 구축·운영 여부	-5
		■ 퇴직 입학사정관 관리	-5
	전문성 제고	■ 평가 운영 체계 내실화	10
		■ 입학사정관 채용·운영 현황	8
		■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실적	5
		■ 대입전형 데이터 관리 및 활용 현황	2
<b>소계(감점)</b>			<b>25(-10)</b>
2 고교연계성	고교교육 지원 활동	■ 교육과정 직접 지원	15
		■ 기타 고교 및 시도교육청 협력 프로그램 운영	5
	고교교육 반영 전형 운영	■ 개정교육과정 취지에 부합하는 전형 운영	15
		■ 「2028 대입개편안」에 따른 전형 개선 연구 결과 활용	5
<b>소계</b>			<b>40</b>
3 사회적 책무성	사교육 부담 완화	■ 대입정보제공 확대	12
		■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합리적 운영	6
		■ 사교육영향평가 실시 및 결과 반영	6
		■ 대학별고사 및 특기자전형 운영	(-25)
	사회통합 및 균형발전 지원	■ 기회균형 특별전형 운영(선발 규모의 적정성)	3
		■ 지역균형 특별전형 운영(선발 규모·방식의 적정성)	3
<b>소계(감점)</b>			<b>30(-25)</b>
예산	사업비 집행 실적(25) 및 집행의 적절성(26)		5
<b>총계(감점)</b>			<b>100(-35)</b>

**2 자율공모사업**

평가영역	평가 요소 및 내용	배점
I. 이행노력	I-1. 계획 이행도 -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성과확산 계획 포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했는지	25
	I-2. 성과창출 노력 - 사업목적(고교교육에 기여, 사교육부담 완화 등) 등의 달성 과정에서 해당 대학이 추진한 노력	20
	I-3. 사업비 집행 실적 및 집행의 적절성	5
II. 목표달성도	II-1. 대학의 자율 성과지표(1차 년도) 달성도	15
	II-2. 기본 사업과의 차별성(중복 여부)	5
III. 성과	III-1. 당초 의도한 성과 - 주제별 사업목표, 수요자 만족도, 기대효과 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15
	III-2. 성과 확산 가능성 - 사업 결과물의 성과확산 가능성, 기대효과 등의 중요성 등을 평가	15
<b>총계</b>		<b>100</b>

**붙임2**

**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차평가 결과**

**1 기본사업**

평가결과	대학 ('가나다' 순)
S등급 (18교)	강원대학교, 경기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대구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인천대학교, 조선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호서대학교
A등급 (55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건국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운대학교, 경희대학교, 고신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국립경주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WISE),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송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아주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국외국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양대학교
B등급 (18교)	건국대학교(글로벌), 경남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국민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동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울산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원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성대학교, 홍익대학교

**2 자율공모 사업**

분야	대학 ('가나다' 순)	평가 결과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경기대학교, 송실대학교	'적정'
고교 교육과정 지원	경남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계명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전형 운영 개선	동국대학교,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대입정보 제공 확대	고신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선문대학교, 아주대학교, 조선대학교, 호서대학교	

□ **추진 방향**

- 고교학점제, 「2028 대입개편」 등 고교교육 및 입시 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분야별 선도모델 발굴 추진
- \* 입학사정관 전문성 강화, 고교-대학 간 연계성 확대, 대입 정보제공 활성화 등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6년 3월 ~ '27년 2월
- ※ 4주기('25~'26, 2개년) 2차년도 사업으로, '25년 선정대학은 지원 중단 없이 '26년 계속 지원 원칙
- (지원규모) 91개교/'26년 58,533백만원(대학지원금 57,533, 사업관리비 1,000백만원)
- \* '25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는 '26년 통합 '강원대 출범으로 통합 지원
- (지원유형) '기본사업(공통)'과 '자율공모사업(선택)'으로 구분

구분	지원목표	선정/지원 규모
기본사업(공통)	대입전형 운영을 통한 고교교육 지원 및 사회적 책무성 확보	91개교/ 53,682백만원
자율공모사업(선택)	대학별 특성에 맞는 분야별 선도모델 발굴 및 성과확산	16개교/ 3,851백만원

- 자율공모사업 참여대학은 4개 중점과제(택 1)\* 관련 선도모델 개발 추진

- \* ①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② 고교 교육과정 직접 지원
- ③ 전형 운영 개선(개정교육과정 연계성 제고 등), ④ 대입정보 제공 확대

□ **연차평가**

- (평가 내용) '25년 사업운영 결과 및 '27~'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구분	평가 기준	결과 활용
기본사업	①대입평가 역량, ②고교 연계성, ③사회적 책무성, ④예산 등 4개 영역 17개 지표로 상대평가	우수(20%), 보통(60%), 미흡(20%)으로 구분, '26년 사업비 차등 지원' 및 추가 컨설팅 실시 ** '미흡' 대학 사업비 10% 감액하여 '우수' 대학에 지원
자율공모사업	①이행노력, ②목표달성도, ③성과 3개 영역 7개 지표로 절대평가	60점 미만인 대학은 지원 중단, '26년은 기본사업만 수행하도록 전환

□ **추진일정**

- 연차평가(4월 말) → 사업배분(안) 확정 및 대학별 사업 추진(6월 중)